

# 참되고 지혜롭게

2023년 7월 31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폭우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간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규칙적이었던 우기와 건기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기임에도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우기임에도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메마름과 흙 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세의 한 현상으로 본다면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어려운 세상만을 바라보며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내가 준비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집과 학교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만 물 값도 비싸고, 정부에서 연결된 수도 파이프가 노후되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이 부족할때에만 수도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건기에 흙먼지가 너무 많아 빗물에서 이상한 것들이 섞여나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후춧물'이라고 합니다. 물에 후추를 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받아 놓으면 사진에서처럼 미세한 불순물들이 가라 앉습니다. 매일 일상처럼 보는 것인데 어느 날은 문득 한참을 바라 보았습니다. 왜 이런 물을 사용하지? 그리고 새삼스럽게 이곳이 우간다임을 깨달곤 합니다. 이런 걸 '현타'라고 하나요?!ㅎ



학교 앞 도로가 포장되길 기다린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 해, 한 해 기다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짙은 짙은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흙을 부어 놓고는 몇 달, 다져 놓고 몇 달, 또 붓고 몇 달..... 지금은 건기에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나서 학교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한국같은 당장 민원이 들어가고 학교 환경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해 줄 텐데 이곳에선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학부모도, 지역 주민들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냥 정부에서 해 줄 때까지 견디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해도 안 되면서도 신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 되면서 3학년까지만 있는 저희 학교에 4학년을 계속해서 열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초등학교 과정이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있는데 저희는 3학년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4학년이 되면 저희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할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과정만을 운영하려고 학교를 건축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그래도 3학년까지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과 여건들이 변하면서 또 다른 필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진지하게 기도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을 한꺼번에 풀려는 듯, 교사들 웃도 새로 하고, 학부모들도 단체 옷을 맞춰 입고 모든 아이들, 학부모, 동네 사람들까지 온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희 어린시절 운동회를 떠올리면 이곳의 운동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며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 주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행사인 만큼 한 달 내내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하며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다음 달 **8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두 달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사회봉사 요원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강현이를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할 숙소를 마련해 주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눈 시력 편차가 심해서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았습니다.) 강현이는 지난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알래스카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나면 8월 15일에 강현이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강현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방문하고 돌아와야 하기에 혹시라도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 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문 일정으로 인해 저희가 없는 동안 학교나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일들로 또 바쁘게 7월을 보냈습니다. 거의 매달 열리는 땅 재판은 7월 달은 상대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건기의 흙 먼지가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시원한 빗줄기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에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한국 방문기간(8월15~10월11일) 동안 강현이의 숙소를 잘 마련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 주도록.
2. 강현이의 사회복무 근무지가 시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적당한 곳으로 잘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3.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학교의 교직원들이 성실하게 학교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4. 한국을 방문하는 짧은 시간 동안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도록.
5. 강진이가 학회와 연구 논문,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P.O. Box 11701 Kampala Uganda



salt dh@gmail.com / saltkeh@gmail.com



이동해\_salt dh / 김은희\_saltkeh



이동해\_+256(0)774-605808 / 김은희\_+256(0)784-239806



후원금 관리\_서현교회 권정선 자매(010-5348-2824)